

건강 칼럼

간경변증 환자, 간암 발생률 1000배 높다

간은 신체의 '에너지 관리 센터'로 불린다. 하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다.

바이러스, 술, 지방, 약물 등의 공격을 받아 70~80%가 파괴돼도 위험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B형 간염 환자와 술 소비량이 많은 우리나라는 간 질환 위험 국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장기인 간에 악성종양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간암'이다. 간에 생기는 악성종양은 간세포암, 담관암, 전이성 간암 및 혈관육종 등이 있다. 보통 간암이라고 하면 일 반적으로 간세포암을 지칭한다.

◇중장년·노년층 선진국에 비해 B형 간염 비율 높아  
간암은 국내에서 4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하지만 사망률은 폐암 다음으로 국내 암 사망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간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다. 그 밖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염과 C형 간염 바이러스, 심한 지방간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성적인 간 손상이 발생하고 염증반응과 동반된 면역반응이 반복돼 간 섬유화가 진행되고 심한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 상태가 되면 간암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간암의 국내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 B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 비해 아직 국내 B형 간염 유병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또 음주에 관대한 사회 통념상 자주 그리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분들이 많아 알코올성 간경변증도 많은 편이다. 국내 간암



남 순 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발생률이 높은 이유도 이렇듯 바이러스와 술 때문에 심한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을 앓는 국내 환자들이 많은 영향이 크다.

A형 간염은 그 자체만으로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 보통 급성으로 발병해서 대부분 호전되고 만성으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에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거나 알코올성 간경변 환자는 간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간경변증 유무는 간암 발생률에 큰 영향을 준다. 간암 환자의 80%에서 간경변증이 선행하고 간경변증을 앓는 경우 간암 발생률은 1000배 이상 증가한다.

간경변증 환자에서 파괴되고 경화된 간세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한 면역반응과 발암 기전으로 인해 간암이 발생할 확률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유자나 경증의 만성간염 환자에 비해 더 자주 진료를 받고 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초기에 간암 발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기 작은 초기 간암, 빠른 치료

하면 큰 위험 막아

크기가 작은 초기 간암은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크기가 커지고 임파선이나 혈관 등을 침범한 경우에는 복부 통증이나 불쾌감, 심한 피로감과 쇠약감, 간기능 악화, 황달과 복수 등의 증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간이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이유다.

간암의 기수는 종양의 크기와 종양이 혈관을 침범했는지 여부, 다른 장기로 전이됐는지 여부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종양의 크기가 작고 혈관 침범 등이 없는 초기 단계에는 간을 절제하는 수술이 원칙이다. 물론 조금 크기가 크더라도 간 상태가 나쁘지 않고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로 간을 절제해 주는 것이 좋다.

또 간암의 크기가 작으면서 간경변증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복수가 차거나 간성혼수가 반복되는 등 비대상성 간경변증이 동반돼 있다면 간 이식을 통해 간을 아예 교체해 주는 방법도 있다. 직경 1~2cm 미만의 작은 간암의 경우 고주파 열치료를 통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초기를 지나 중간 단계의 간암의 경우 대부분 간동맥화학색전술(TACE)을 시행한다. 방사선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전체 간에 시술하는 것보다는 작은 부위, 이를테면 혈관이 막힌 부위 등에 방사선을 조사해 간동맥혈전 등을 제거하는 시도를 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맞춤형 면역치료 요법 등이 개발 중으로 미래에는 면역치료가 치료법의 하나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암은 B·C형 간염 예방이 특히 중요

간암은 재발률이 높은 편이다. 수술을 해도 2년 재발률이 40% 이상이다. 재발할 경우 수술이 가능하면 절제술을 재시행할 수 있지만 만약 어렵다면 단계를 하나씩 높여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반복하거나 경구항암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치료한다. 재발을 일찍 발견하기 위해 간암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 검사가 필수다.

간암 예방법은 간경변증의 원인이 되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의 예방이 중요하다. B형 간염은 백신 접종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혈액이나 분비물을 통한 감염을 주의해야 한다.

간염이나 간경변증이 있는 위험군 환자는 6개월 간격으로 종양표지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설

전주시는 코로나 상황 긴장해야

전주시는 코로나와 관련해 긴장해야겠다. 도내 코로나 누적 환자 수가 155명으로 늘었는데 최근의 확진자들을 보면 전주시민들이 대다수이다. 전주에서 계속 감염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전주시는 그것을 밝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여러 날째 전주에서 확진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하다 못해 코로나 감염 예방에 대한 계몽이라도 더 자주 해줘야 할 일이다.

거리두기가 한 단계 낮아졌으면 그만쯤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여간 걱정이 아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들 잘 알고 있을 테지만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 확진 환자만 해도 58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에 더해 그 요양병원의 306호실에서 10월 들어서 7명이나 사망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해뜨락 요양 병원에서 발생한 비극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 도내 모든 요양병원의 실태가 어떠한지 전수조사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여기 전주시에게 코로나와 관련해 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니와 중대분과 전북도에게도 할 말이 있다. 신규 확진자 보고가 신속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유감이다. 보고가 신속하지 않고 정확하지도 않으므로 도대체 신뢰가 가지 않는 요즘이다. 확진자 발생 보고가 뒷북치기 식으로 건너뛰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재고해 마땅하다. 그러한 뒷북치기식 안전 안내문자 전송은 성가시고 귀찮을 뿐이다.

중대분은 물론이고 전라북도도 전주시는 잘 생각해라 한다. 때때마다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중구난방 그 자체이다. 보고가 간헐적인 것도 못 마땅한데 보고 내용 또한 너무 소략하다.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시민들은 언제 어디에서 발병 사건이 있었는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데 안전 문자 내용이 가관이다.

언제 어디에서 발병이 있는지 그 정보를 일반 시민들도 동시에 공유되게 했으면 한다. 정보를 공유해야 코로나 예방에 대한 효과를 볼 것이 아니냐 말이다.

예산 증액 확보가 있어야 한다

예산 증액 확보가 절실한 지금이다. 이번엔 정부가 말한 뉴딜과 관련해서도 예산 증액은 필수적이다. 전북 뉴딜의 성공 여부는 예산이 말을 하게 돼 있다.

지난 여름 전북도는 정부의 전북에 대한 예산으로 755222억원이 반영됐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4691억원이 증액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코로나와 홍수 재해로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생각하면 그것은 상당한 발전이었다. 그러나 전체 국가 예산 규모를 보아야 했다. 국가의 전체 예산규모가 555조 원인 점을 생각하면 전북에게 허락된 그 증액이라는 게 마뜩치 않았던 것이다.

전북도는 4691억원의 증액에 의미를 부여해 만족을 말한 안된다. 지역 발전은 예산의 대폭 증액 확보가 답이다. 여러가지 해법이 있을 테지만 역시나 최고의 해법은 증액된 예산 확보이다. 무슨 일이고 돈이 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하면 아무리 발전 열망이 뜨겁다 해도 목표한 바

를 이룰 수가 없다. 예산에 보여주었던 것보다 더한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여기 다시 강조하거니와 예산 증액 확보는 도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전북도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사업이며 새만금 신항과 신공항 등 여러 핵심사업들을 생각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한 현안들이 추진에 있어서는 터덕거리고 있는데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실력 발휘를 해줘야겠다. 전북도가 해결해야 할 대상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고 도민에게 여러 차례 그 성취를 자신한 것들이다. 나중에 예산 부족으로 일이 안 풀렸다는 식의 변명의 말을 들려주어서는 안된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전북도는 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 힘내야 한다. 이대로라면 지역 발전을 위한 안이 언제 성취의 모습을 보여줄지 전망하기 어렵다. 발전 프로젝트들은 반드시 성공 가도를 달려야 한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 더 뛰어야겠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건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경찰과 밀고 밀리는 태국 민주화 시위대



지난 15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중 민주화 시위대가 경찰과 물싸움을 벌이고 있다. 시위대 일부는 정부청사 주변에서 발شم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은 이들을 해산시켰다.

제엔베코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사임 발표



소련비 제엔베코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2019년 6월 14일 제엔베코프 대통령이 비슈케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떠나는 모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